

창업준비와 창업실패 부담감이 창업성과에 미치는 영향 연구 : 사회적지지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향원*

호서대학교 벤처대학원 박사과정

하규수**

호서대학교 벤처대학원 교수

국 문 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창업자가 창업을 함에 있어 창업준비를 통해 창업성과에 미치는 영향관계와 본질적으로 항상 내재되어 있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 요인이 창업성과에 미치는 영향 관계를 실증 검증하고자 한다. 두 번째로 상반된 개념의 독립변수가 동시에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이에 따라 변수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고, 사회적지지를 조절변수로 하여 창업준비와 창업실패에 대한 부담감이 조절효과가 있는지 검증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의의는 창업준비와 창업실패 부담감이 창업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규명하고 사회적지지의 조절효과 요인을 분석하는데 있다. 연구의 학문적 함의점은 주요 많은 국내문헌에서 창업실패감과 창업의지에 관한 연구중심에서 벗어나 창업준비와 실패에 대한 부담감이 창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직접적으로 검증하는데 있다. 또한 창업자들이 인식하고 있는 창업준비와 창업실패에 대한 부담감이 창업성과의 영향관계를 파악하여 구체적인 실무적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핵심주제어: 창업준비, 창업실패부담감, 창업성과, 사회적지지

1. 서론

최근 세계경제 위기와 지속적인 내수경기의 침체는 창업자들의 불안감이 증폭시키고 있다. 정부의 강력한 정책과 다양한 공적자금 및 지원 자금이 있지만 막상 창업자들의 경제적 부담감과 함께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늘어나고 있다. 또한 창업을 결정하고 창업준비를 철저히 한 창업이 아닌 Park and Ahn(2016)은 창업지원 정책을 이용할 목적으로 창업을 시작하는 창업이 많아지고 있다. 시장 환경의 변화와 소비패턴의 변화 속에서 창업을 준비한 창업자들과 정부의 창업지원 목적의 준비 없는 창업은 창업자 모두 불안함과 두려움을 가질 수 있다.

Landier(2006)는 기업가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과 같은 기업가의 심리적 장벽은 활동을 저해하는 중요한 지표이다. 또한 정부의 자금지원에도 창업자들은 여전히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 Kwak et al.(2016)은 정부의 사업화 및 운전

자금 지원 부족, 창업 후 사후관리 부족, 연계성 사업의 미흡 등 문제를 지적하였다. 창업가가 창업생태계에서 살아남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여정이다.

남기정(2020)은 창업자는 창업에 대한 철저한 생존요인 분석을 통해 창업성공률을 높여 기업의 부실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창업자가 창업을 함에 있어 창업준비를 통해 창업성과에 미치는 영향관계와 본질적으로 항상 내재되어 있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 요인이 창업성과에 미치는 영향 관계를 실증 검증하고자 한다. 특히 주요 많은 국내문헌에서 창업실패감과 창업의지에 관한 연구중심에서 벗어나 본 논문은 창업준비와 실패에 대한 부담감이 창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직접적으로 검증하여 연구의 차별성이 있다고 하겠다. 또한 상반된 개념의 독립변수가 동시에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이에 따라 변수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할 수 있으며, 사회적지지를 조절변수로 하여 창업준비와 창업실

* 제1저자, 호서대학교 벤처대학원 박사과정, hanhyangwon@gmail.com

** 교신저자, 호서대학교 벤처대학원 교수, kyusooa@naver.com

패에 대한 부담감에 조절효과가 있는지 검증하고자 한다. 뿐만 아니라, 기존에 실증연구가 부족했던 현재 창업을 하고 있는 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실패감의 부담이 창업성과에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는 분석 또한 연구의 차별점이 있을 수 있다. 실패에 대한 부담감이 창업자 자신의 준비와 행동을 통해 상쇄시킬 수 있는지 여부와 가족과 친구 등의 주변 사회적지지자로부터 상쇄가 가능한지에 대한 효과성도 살펴보고자 한다. 뿐만 아니라 창업자들이 인식하고 있는 창업준비와 창업실패에 대한 부담감이 창업성과와의 영향관계를 파악하여 구체적인 실무적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II. 이론적 고찰

본 연구는 창업준비와 창업실패부담감이 창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선행연구를 실증 분석하는데 그 목적 있다. 창업준비의 하위요인으로 아이템준비, 자금준비, 창업팀 준비를 창업 실패부담감의 하위요인으로 경제적 부담감과 실패의 불안감으로 하였다. 종속변수인 창업성과는 비재무적 성과를 중심으로 단일요인으로 선정하였다. 창업자들의 창업준비와 창업 실패부담감이 창업성과 간의 인과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창업준비와 창업실패부담감이 창업성과 간 영향을 미치는 지 검증하였다. 또한, 사회적지지를 조절변수로 정하여 창업준비와 창업 실패 부담감과 창업성과 사이 사회적지지가 상호작용을 하는지 분석하였다.

2.1. 창업준비

Stuart·Abetti(1987)는 창업경험이 기업의 성과와 관계가 높으며 상관관계가 있다고 하였다. 또한, 창업 직전 업종과 창업이후 현 업종과 동일여부가 중요하다고 하였다.

강영욱·하규수(2012)는 창업초기 서울시 소상공인 대상으로 성공창업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창업준비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 창업준비과정과 자기자본비율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창업준비기간이 창업회사의 성공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였다.

오재우 외(2015)의 연구에 의하면 창업에 필요한 자원인 사업아이템과 기술, 필요한 인력 및 자금 확보는 시간투자와 노력에 비례한다고 하였다. 조중연(2016)은 소상공인 대상 창업준비사항에서 업종 및 아이템선정과 창업자금과 창업준비기간을 변수로 하여 창업성과에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에서 창업업종 및 창업아이템 선정이 매우 중요하며

적성과 전직경험 등 고려하여 신중하게 선택해야하며 창업초기 창업자금이 준비된 상태에서의 창업을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였다. 박정우(2020)는 초기스타트업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혼자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만들어지는 사회적 산물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조중연(2016)과 박정우(2020)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창업준비의 하위요인의 아이템준비, 자금준비, 창업팀준비로 선정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2.1.1 아이템준비

Cooper(1986)는 창업가에게 무엇을 생산할 지에 대한 문제는 기업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이며 사업아이템 창업을 결정하는데 큰 변수라고 하였다. Ajzen(1991)은 계획된 행동이론(Planned Behavior)에서 창업자들은 창업준비를 위해 필요한 자금, 기술, 인력 등 확보를 하며 불확실성 속에서 어려움이 있다고 하였다. 강희선(2013)은 창업 아이디어는 시장성을 통해 창업아이디어가 가능한 창업아이템으로 만들어지며 시장성은 상품이 구입 및 판매되는 가능성척도라고 하였다. 김재운(2015)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해 내려면 두 가지 목적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시장의 니즈를 찾아야 하고 상업적으로 니즈와 매칭 시켜 해결책을 찾아 평가와 개발을 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기술기반으로 한 창업아이템은 기술평가와 사업성평가 동시에 이루어져야하고 시장성 있는 창업아이템이 결정될 수 있다고 하였다. 임아름(2015)은 청년창업가의 창업사전준비에 대해 정의하고자 연구하였는데 창업실패의 주요원인 중 아이템 선정 실패가 12%가 나왔다고 하였다. 또한 창업에 있어 중요한 성공요소 중에 하나가 사업아이템 선정이며 창업의 방향을 제시한다고 한다고 하였다. 조중연(2016)은 창업자가 제일 고민해야 하는 것이 사업아이템으로 창업을 시작하면서 창업아이템 선정이 매우 중요한 단계라고 하였다. 조지혜(2019)는 대학생 중 예비창업자 10명을 대상으로 일대일 면접을 통해 어떠한 과정으로 창업을 준비하는지 연구하였다. 창업교육을 통해 창업실전과정에서 창업분야 및 창업아이템을 선정한다고 하였다. 또한 창업아이템에 대한 사업성을 확인하고 확보하고 난 후 다양한 방법으로 자본금을 확보하거나 동업자를 확보하고자 하는 등 창업준비를 한다고 하였다.

2.1.2 자금준비

Vesper(1990)는 사업초기 충분한 자본은 사업체가 사업에 대한 어려움을 이겨내고 생존할 수 있도록 시간적 여유를

준다고 하였다. 정수원(2001)은 충분한 자금 확보가 성공 창업에 중요하며 창업 실패의 여러 요인 중 자금부족은 결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 조중연(2016)은 신규 사업체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자금조달계획이 가장 중요하며 창업을 성공하는 결정적인 요인이라고 하였다. 이는 창업자가 사업체를 경영하는데 창업자금 가장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또한 창업에 필요한 자금은 시설자금과 운영 자금인데 창업자들이 정확하게 필요자금을 예측하기가 어렵고 규모에 맞는 필요자금을 예측하여 조달해야한다고 하였다. 김남표·권영주(2018)는 소상공인의 창업준비성이 창업성과 관계를 연구하였는데 특히 창업준비는 여러 가지 요인들의 충실도에 의해 사업의 실패가 달라진다고 하였다. 또한 창업자금 마련이나, 창업준비기간, 멘토 및 전문 지원 기간 활용 등 주변 환경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2.1.3 창업팀 준비

Vyakarnam et al.(1997)은 개인의 설립기업보다 평균적으로 창업팀 설립이 더 성공적으로 증명된다고 하였다. Lechler(2001)는 특히 창업팀의 강점은 고기술 기반 분야에서 뚜렷한데 기술창업은 시장에 진입하는데 상당히 시간과 자본이 필요하기 때문에 창업팀이 강력한 네트워크 구축 면에서 월등한 성과를 달성 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혜영·김진수(2018)는 3년 이내의 초기기술창업가 273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는데 초기 성과를 위해 1인 창업보다 팀 창업을 고려해야하고 팀 창업 구성 시 전공, 경력 및 전문성이 다양하고 반드시 성공하고자 하는 목표와 비전을 가치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전해진(2019)은 창업팀(entrepreneurial team)이란 2인 이상 구성원이 새롭게 기업을 운영할 목적의 집단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또한 창업팀의 특성은 외부투자자 등 투자 심사 시 중요한 요소라고 하였다.

2.2 창업실패감의 부담감

Boyd Compett(1983)는 중소기업 대표들은 약 55%~65%이상 심각한 불명증과 소화불량 두통 등에 시달리고 있으며 10가지 고통으로 분류하였는데 고독감, 인간관계의 문제, 지나친 과욕 등으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하였다. Shapero·Sokol(1982)은 성공이나 실패는 기업가의 위험감수 능력에 따라 각각 다르며 위험감수로 인한 스트레스를 극복해 나가는 능력이 창업가마다 차이가 있다고 하였다. 하규수·윤백중(2011)은 창업실패에 대한 인식이 높을 때 시

장 전망이 좋더라도 창업의지는 감소된다고 하였다. 오상훈·하규수(2013)는 예비창업자들의 불확실성 및 위험요인 창업의도에 약화요인으로 적용되며 사업실패부담감이 생기고 사업수행시에도 계속해 자신감이 잃는다고 하였다. 이재호(2016)는 창업자 주변 성공과 실패모습이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치는데 실패한 창업자의 모습에서 모든 것을 잃게 만드는 국내 창업생태계 상황에서 창업실패가 곧 인생의 전체 실패로 인식된다는 하였다. 결국 창업실패 시 두려움은 사업실패에 대한 걱정 및 공포감과 불안 등 포괄적으로 볼 수 있다.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본 연구에서는 창업실패 부담감의 하위요인으로 경제적 부담감과 실패의 불안감을 각각 선정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2.2.1 경제적 부담감

하규수(2009)는 기업의 실패할 경우 재무적 비용은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자금과, 사업투자손실, 차입금이 있으며 비재무적 비용은 가족과 연관된 손실, 경력에 대한 손실과 또한 사회적 손실 뿐 아니라 자존심과 상실에 오는 손실 분류 하였다. 김범성(2012)은 벤처기업 같은 경우 창업가는 실패의 부담감이 크며, 가족들에게 큰 부담을 주게 된다. 또한, 실패할 경우 재무적 부담감이 높아지며 심리적 스트레스도 발생한다고 하였다. 장후석(2013)은 창업실패의 두려운 이유는 금적 손실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박성호(2016)는 예비창업자와 기창업자 425명을 대상으로 실증 분석하였는데 자금조달 자심감과 경제적 실패부담감은 창업의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김수연·곽성열·정강욱(2019)은 창업실패는 국가적으로 상당한 비용과 함께 개인적인 채무와 사회적으로 외면 받는 처지에 놓인다고 하였다.

2.2.1 실패의 불안감

Politis·Gabriellon(2009)은 실패의 경험은 창업준비에 동기부여가 된다고 하였다. 김나래·이기학(2013)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으로 일어나는 상황을 회피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특히 주변의 부정적인 평가에 대한 두려움에 자기 의사결정이 비례하여 크게 장벽이 있음을 인식할 수 있다고 하였다. 장후석(2013)은 한번 실패 시 재기가 어려운 사회로 인식되고 있으며 창업실패가 개인파산과 연결되면서 부정적 인식 뿐만 아니라 실패이후 재도전이 쉽게 용인되지 않는 사회적 분위기로 창업이 부진하다고 하였다. 송경숙(2015)은 실패부담감이 창업실패에 미치는 영향에서 실패부담감은 재무적 비재무적 손실에 정(+의 영향을 미

친다고 하였다. 하규수·한정화(2010)는 기업이 실패할 경우 재무적 및 비재무적 비용이 발생하며 이러한 비용들은 심리적 스트레스 및 사업실패 스트레스 영향을 미치고 사업의욕에도 부정적 요인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창업가에 있어 사업을 운영하다가 오는 불안감에서 실패의 불안감은 스트레스로 이어지는 여기에서 스트레스 내성이 필요하다. Rauch·Frese(2007)은 스트레스 내성(Stress tolerance)에 의해 사업의 성공과 실패 양쪽에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있다고 하였다. 김범성(2012)은 창업가의 스트레스내성이 강하면 스트레스 발생도 감소하고 또한 스트레스가 생길 경우 이를 쉽게 해결 할 수 있다고 하였다.

2.3 사회적지지

사회적지지는 처음 Durkheim(1951)에 의하여 시작된 이론으로 사람들의 사회적인 상호관계에 연계 되는 정보제공, 정서적인 지원, 서비스 및 물질적인 지원 등을 포함한다고 하였다. 이후 Cobb(1976)에 의하여 개념적 정의가 확실하게 이루어져 사회적지지를 개인 스스로 보살핌과 사랑을 받고 있고, 스스로가 소중하고 가치 있으며, 전반적으로 타인과의 상호작용에 있어서 개인이 존경받고 보호받을 수 있다는 신념과 결과라고 정의하였다. House(1981)는 사회적지지를 개인이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얻을 수 있는 모든 긍정적인 자원 및 도움으로 상호 작용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로부터 서로 주고받은 정서적 관심, 도구적 지원, 정보, 평가라고 정의하고 있다. 고 하였다. 세부적으로 존중, 인정, 사랑 등 정신적인 도움이나 물질적 도움이라고 하였다. 김남표·권영주(2018)는 선행연구와 마찬가지로 사회적지지가 창업성공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사회적지지가 모든 창업성공 변수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사회적 영향력과 개인네트워크 형성 및 활용은 자영업 창업성공에 매우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창업가는 사회적지지는 조직은 물론 개인이나 기업 활동에 있어서 상호신뢰와 인정, 존중감, 물질적, 정신적 협력 관계 등을 구축하여 사업성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선행논문을 참고하여 본 연구에서는 House(1981)의 정서적지지로써 창업자 에게 가장 영향을 줄 수 있는 가족과 주변지인들로부터 창업자가 인지하고 동정, 관심 사항, 신뢰 등을 의미한다. 특히 정서적 지지는 자기존중, 신뢰, 관심, 경청을 포함하여 창업자는 기업의 생존과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외로움을 느낄 수 있고, 또한 본인이 옳은 일을 바르게 하고 있는가에 대해 의구심을 늘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것에 대한 주변의

지지는 창업자에게는 정서적 안정감을 제공해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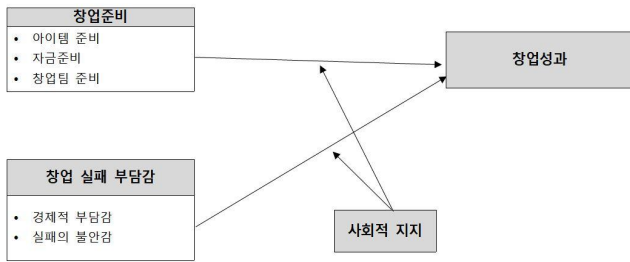
2.4 창업성과

Venkatraman·Ranmanujam(1986)의 연구에서는 재무적 성과와 비재무적성과 및 만족도 등 주관적 성과 등의 다양한 측면에서 연구하였다. Cooper(1993)는 벤처기업 성과 측정의 새로운 모형을 제시했는데 창업자특성, 초기기업특성 및 환경, 창업과정이 기업성공에 미치는 요인이라고 하였다. Zahar(1996)는 재무적 성과가 부족한 초기창업시점에서 비재무적 지표를 사용하고 제품의 브랜드인지도 및 주문, 성장률, 현금흐름표, 수익성 등 재무지표를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김재운(2015)은 기업성과는 경영성과와 혼용되어 사용되는데 기업성과는 정량적 측정가능 재무적 성과 지표를 바탕으로 외부평판, 기술력, 신제품개발 및 적용, 창업자 만족도 사용되고 있다고 한다. 이영주·양영석(2018)의 연구에 의하면 정부의 창업교육과 컨설팅지원 사업 등이 비재무적 경영성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이성제(2019)는 비재무적 성과 측정을 위해 브랜드인지도, 지식재산권출원, 아이템개발, 고객만족, 자금유치 등을 측정항목으로 사용하였다. 선행 연구를 참조하여 본 연구에서의 창업성과란 비재무적성과로서 김재운(2015)연구에서 측정항목으로 매출적인 성과만족과 창업자의 현재 사업에 대한 만족도로서 단일변수로 측정하였다.

III. 연구 방법

3.1. 변수들의 요인 도출 및 연구모형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 논문을 근거로 하여 창업준비와 창업실패부담감이 창업성공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자 한다. 독립변수인 창업준비의 하위요인은 아이템준비, 자금준비, 창업팀 준비 요인으로 하였으며 창업실패부담감의 하위요인으로 경제적 부담감과 실패의 불안감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본 연구의 목적은 창업준비와 창업실패부담감이 창업성공에 영향을 미칠 때 사회적지지가 조절역할을 하는지 파악하고자 하였다.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창업성공에 미치는 요인을 파악할 수 있도록 변수들과 그 하위요인들간의 관계성은 다음과 같이 구축하였다.



<그림 1 연구모형>

앞서 제시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상기의 변수들 간의 관계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였다.

3.2.1. 창업준비와 창업성과간의 관계

Vesper(1990)는 창업경험과 기업성과에서는 유의하지 않다고 하였다. 남정민외(2013)는 창업자의 철저한 준비와 사업계획서의 중요성이 다른 요인보다 더 중요성이 강조하였다. 창업을 위한 오랫동안 정신적, 물질적 준비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사전에 창업준비를 철저하게 한 창업자만이 기회를 찾고 창업을 성공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성공 창업을 위해서는 창업자원 확보가 필요한데 창업자금, 사업아이템확보와 기술 및 인력 등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중요한 과정이며 창업준비는 창업자의 투자시간과 노력에 비례한다고 하였다. 김남표·권영주(2018)는 소상공인의 창업준비성과 사회적지지가 창업성과와 관계에 대한 연구에서 창업에서는 아이템 발굴과 창업자금 마련과 해당 기술력을 확보해야 하며 판매전략 등 많은 준비가 필요하며 창업준비는 창업할 때 시간과 노력의 투자 정도를 말한다고 하였다. 또한, 창업준비성과 재무적성과는 기각이 되었으며 비재무적성과는 채택되었다고 하였다.

박재환·안태욱(2016)은 성공적인 창업을 위해서는 창업준비가 중요 하지만 여전히 창업준비에 대한 선행자료가 부족하다고 하였으며 창업준비는 창업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치게 나타났다. 박희상·김규배(2019)는 창업자 332명을 대상으로 인과 관계를 검증하였는데 창업 시 창업경험 및 네트워크는 비재무적성과와 재무적성과에 간접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나왔다. 창업자의 시행착오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사업아이템과 유사한 경험을 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노하우 전수를 위한 창업멘토링 준비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장수덕(2020)은 연구결과 단독창업에 비해 공동창업은 창업만족과 긍정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유의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선행결과를 토대로 본 논문에서는 창업준비가 창업성과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하위개설인 아이템준비, 자금준비, 창업팀 준비 세 가지 측면에서 창업성과가 유의할 것이라는 가설을 설정하고 다음과 같이 확인하고자 한다.

가설 1. 창업준비는 창업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 1-1. 아이템준비는 창업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 1-2. 자금준비는 창업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 1-3. 창업팀 준비는 창업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3.2.2. 창업실패부담감과 창업성과간의관계

기존 연구자들은 사업실패부담감과 사업의지와 관계에 대한 연구들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실제로 사업실패감과 사업의지, 사업실패감과 사업의욕, 사업실패감과 스트레스로 이루고 있다. 이규용(2007)은 스트레스를 부정적이거나 긍정적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하였다. 한정화(2008)는 기업인이 스트레스를 인식할 때 모두 나쁜 것은 아니지만 지나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관리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창업실패 스트레스 경험으로 인해 효율적인 대처를 보일 수 있다고 하였다. 하규수·한정화(2010)의 현재 사업 중이거나 실패경험이 있는 사업가 247명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금융기관 차입금의 기업실패 스트레스가 심리적 스트레스와 중단 손실 스트레스 모두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연구에서는 기업실패로 인한 기업가의 부담감과 사업실패 스트레스와 사업의욕과의 관계를 연구하였는데 사업실패경험자나 왜곡된 자본조달방법으로 사업을 시작하거나 막연하게 사업을 생각하는 예비창업자들도 사업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고 하였다. 또한, 사업을 시작한 후 중간에 중단은 어려운데 사업을 종결할 때 부담되는 재무적비용과 비재무적비용 등의 다양한 비용 등이 사업스트레스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특히 기업경영에서 예측보다 자금소요는 예상보다 빠르게 소진되고 이러한 경우 실패위험은 증가한다고 하였다. 또한, 실패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과 실패가능성에 따라 두려움과 함께 가족, 명예, 자존감, 경력 등 사회적 손실과 관련된 비재무적 손실 또한 사업실패에 대한 스트레스 요인으로 사업의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였다. 박대섭(2018)은 창업실패부담감은 창업이 실패할 경우 모든 것을 잃을 수 있으며 저해 요인이라고 하였다. Forkman et al(1986)은 스트레스는 주위에서 도움을 주어 지혜롭게 대처하는지 여러 변수로 인해 다양해질 수 있다고 하였다. 신종철(2012)은 스트레스는 시장지향성에 부의 영향을 미치며 창업성

과와는 매개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따라서 선행결과를 토대로 본 논문에서는 창업실패부담감이 창업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하위가설인 경제적 부담감, 실패의 불안감 두 가지 측면에서 창업성과가 유의할 것이라는 가설을 설정하고 다음과 같이 확인하고자 한다.

가설 2. 창업실패 부담감은 창업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 2-1. 경제적 부담감은 창업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 2-2. 실패의 불안감은 창업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3.2.3. 창업준비와 창업실패부담감이 창업성과에 영향을 미칠 때 사회적지지 조절효과 관계

Sarasvathy(2008)은 사회적지지가 모든 창업성과 변수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사회적 영향력과 개인의 네트워크 형성·활용이 자영업의 창업성과에 매우 중요하다는 시사점을 주고 있다고 하였다. 김남표·권영주(2018)는 소상공인 357개 업체 대상 창업준비 및 사회적지지와 정부의 창업 컨설팅 지원이 창업성과의 연관성을 연구하였는데 창업성과에 유의한 영향요인은 사회적지지와 창업준비성이라고 나타났다. 특히 창업준비는 여러 가지 요인들의 충실도에 의해 그 성패가 달라지는데 창업자들은 창업자금 마련이나, 멘토링 및 전문기관 등의 활용하거나, 창업준비기간 확보해야 하며 사례나 체험 등의 환경적으로 정보 공유가 중요하다고 하였다. 사회적지지는 기업이나 조직 등 사회적 관계를 통해 신뢰와 존중 등을 구축하여 사업성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임희진(2020)은 표본 집단 220명 대상으로 심리적특성과 사회적지지를 조절효과로 가족, 지인들의 주변인들의 정신적인 지지와 물질적지지가 기업성과에 연구하였다. 창업가의 심리적특성 중 자기효능감은 사회적지지에 따라 기업성과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채택되었다. 이는 창업가의 자기효능감은 불확실한 창업과정에 반복되는 위기와 위험 등에 있어 자신을 신뢰하기 때문에 확신을 가지게 되며 이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으며 주변에서도 물리적 심리적 도움은 이러한 자신감을 더욱 강화시켜 높은 성과가 달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하였다. 또한, 스트레스 내성은 기업성과에 정(+)의 영향을 주는 연구결과가 나왔는데 기업이 실패할 경우 창업가의 재무적 부담이 높아지면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오게 된다. 스트레스 내성은

기업성과에 유의미한 성과로 확인하였다.

김남표·권영주(2018)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창업준비, 창업실패부담감과 창업성과 간의 관계에서 사회적지지 조절효과에 대한 검증과 하위가설인 창업준비와 창업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때 사회적지지 조절효과, 창업실패부담감이 창업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때 사회적지지 조절효과가 가설을 설정하고 다음과 같이 검증하고자 한다.

가설 3. 창업준비, 창업실패 부담감과 창업성과에 간의 관계에서 사회적지지의 조절효과가 있을 것이다.

- 3-1. 창업준비가 창업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때 사회적지지의 조절효과가 있을 것이다.
- 3-2. 창업실패 부담감은 창업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때 사회적지지의 조절효과가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강영욱·하규수(2012). 소상공인 창업자특성과 창업준비과정이 창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자기효능감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디지털융복합연구*, 10(9), 239-251.

강희선(2013). *창업아이템 시장성 분석과 지원과제*. 박사학위논문, 배재대학교.

김남표·권영주(2018). 소상공인의 창업준비성, 사회적 지지, 정부의 창업컨설팅 지원과 창업성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한국창업학회지*, 13, 1-25.

김재윤(2015). *창업아이템의 기술특성요인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한밭대학교 창업경영 대학원, 13-101.

남기정(202). *생존분석기법을 이용한 청년창업기업의 생존요인 도출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벤처대학원.

남정민·전병준·박정우(2013). 창업 성공에 영향을 미치는 창업준비단계 핵심요인 연구-한국노동패널을 활용한 창업 생존에 대한 중단분석. *인적자원관리연구*, 20(5), 27-43.

남정민(2013). *창업멘토링이 창업태도와 창업의도 간에 미치는 조절효과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대섭(2018). 예비창업자, 재창업자, 기존창업자의 지속 가능한 외식 창업에 관한 연구. *외식경영연구*, 21, 211-242.

박재환·안태욱(2016). 기업가정신과 창업준비가 사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창업인프라 활용 매개효과 중심으로. *벤처창업연구*, 11(1), 39-47.

박정우(2020). *초기 스타트업 창업가의 기업가적 리더십, 팀 학습 행동, 팀 경계 확장 행동 및 성과의 관계* (Doctoral dissertation,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희상·김규배(2019). 창업준비 활동 및 창업자특성이 창업성과에 미치는 영향. *기업경영리뷰*, 10(3), 273-290.

신종철(2012). *창업가의 특성이 창업성과에 미치는 영향: 창업가십과 스트레스의 기대 효과*. 중앙대학교 창업학과 박사학위 논문.

- 전혜진(2019). *창업팀 구성원이 특성과 다양성 수용이 성과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 오재우·이동형·강진규(2015). 창업준비성이 창업초기기업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연구: 창업준비기간의 조절효과 중심. *벤처창업연구*, 10(4), 67-80.
- 이규용(2007). *외국인력 노동시장 분석 및 중장기 관리체계 개선방향 연구* (Vol. 2). 한국노동연구원.
- 이영주·양영석(2018). 창업가가 인식한 정부창업지원사업 중요도와 만족도 및 기대충족도가 창업기업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벤처창업연구*, 13(1), 31-41
- 이재호(2016). *창업동기와 실패부담감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 국가간 비교를 통한 사회안전망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계명대학교 대학원.
- 이혜영·김진수(2017). 초기 기술창업기의 창업가 역량과 창업팀 역량이 성과에 미치는 영향. *한국창업학회*, 12(2), 31-56.
- 임아름(2015). *청년창업가의 역량이 창업행동과 창업성과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조선대학교 대학원.
- 임희진(2020). *경찰관 기동대원의 직무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Doctoral dissertation, 서울대학교 대학원).
- 오상훈·하규수(2013). 창업 환경 및 인식이 사업실패부담감을 매개로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 *The Journal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11(8), 143-157.
- 장수덕(2020). 무엇이 청년 창업자들을 만족하게 만드는가? 창업의 외재적·내재적 만족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창업학회지*, 15, 96-118.
- 조중연(2016). 소상공인 창업자의 개인적 특성 및 창업 준비수준이 창업성과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 조지혜(2019). 대학생의 창업 준비과정 경험에 대한 탐색적 연구. *핵심역량교육연구*, 4(10), 29-46.
- 정수원(2001). 불황기 중소 벤처기업의 생존전략. 학술발표 및 토론/제 2 분과 발표장: 부산의 소상공인지원센터 이용자 만족도에 관한 연구. *한국중소기업학회 춘계학술발표논문집*, 2001, 137-156.
- 차가영·김재윤(2015). BSC 개념을 이용한 경영성과지표 개발의 사례연구. *한국경영과학회 학술대회논문집*, 4319-4326.
- 하규수·윤백중(2011). 대학생의 창업 성공과 실패에 대한 인식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12(8), 3406-3414.
- Ajzen, I.(1991).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Decision Processes*, 50, 179-211.
- Bates, T.(1980). Small Business Administration Loan Programs. *Financial Review*, 15(4), 8-8.
- Birley, S., & Westhead, P.(1994). A taxonomy of business start-up reasons and their impact on firm growth and size.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9(1), 7-31.
- Cardon, M. S., & McGrath, R. G.(1999). When the going gets tough... Toward a psychology of entrepreneurial failure and re-motivation. *Frontiers of entrepreneurship research*, 29(4), 58-72.
- Cope, J.(2011). Entrepreneurial learning from failure: An interpretative phenomenological analysis.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26(6), 604-623.
- Cobb, S.(1976). *Social support as a moderator of life stress*. Psychosomatic medicine.
- Cooper, A.(2003). *Entrepreneurship: The past, the present, the future*. In *Handbook of entrepreneurship research* (pp. 21-34). Springer, Boston, MA.
- Cooper, A., & Folta, T.(2017). Entrepreneurship and high-technology clusters. *The Blackwell handbook of entrepreneurship*, 348-367.
- Cooper, C. L.(1981). *The stress check: Coping with the stresses of life and work*. Prentice Hall.
- Cope, J. P., Cave, F. D., & Eccles, S. A.(2008). *The impact and outcomes of venture failure: an entrepreneurial learning perspective*.
- Cressy, R.(1999). Small business failure: failure to fund or failure to learn. *Entrepreneurship,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and the macroeconomy*, 161-185.
- Durkheim, E.(1951). *Suicide: a study in sociology*, translated by John A. Spaulding and George Simpson.
- Farber, B. A., & Miller, J.(1981). Teacher Burnout: A Psychoeducational Perspective. *Teachers College Record*, 83(2), 235-43.
- Jang, H. S.(2013). A society that is afraid of starting a business. Public perception survey on entrepreneurship. *Sustainable Growth VIP Report*, 13-35.
- Kim, S. Y., Kwak, S. Y., & Jung, G. O.(2019). The impact of resilience on entrepreneurial intention of failed entrepreneur: Focus on the moderating role of entrepreneurial experience, role model and entrepreneurial education. *Regional Industry Review*, 42(1), 57-82.
- Kwak, D. C., Joo, Y. H., & Cho, B. H.(2016). A study on influential factors of survival rates: Focused on youth start-ups. *Asia Pacific Journal of Small Business*, 38(4), 77-94.
- Landier, A.(2005). *Entrepreneurship and the Stigma of Failure*. Available at SSRN 850446.
- Lechler, T.(2001). Social interaction: A determinant of entrepreneurial team venture success. *Small Business Economics*, 16(4), 263-278.
- Lim, A. R., Kim, H. C., & Kim, K. P.(2015). The effect of youth entrepreneurs' competence on entrepreneurial behavior and entrepreneurial performance. *Korean Management Consulting Review*, 15(3), 143-154.
- Mason, M. J., Zaharakis, N., & Benotsch, E. G.(2014). Social networks, substance use, and mental health in college students. *Journal of American College Health*, 62(7), 470-477.
- Mezirow, J.(1991). *Transformative dimensions of adult learning*. Jossey-Bass, 350 Sansome Street, San Francisco, CA 94104-1310.
- Politis, D., & Gabrielsson, J.(2009). Entrepreneurs' attitudes

- towards failure. *International Journal of Entrepreneurial Behavior & Research*.
- Rauch, A., & Frese, M. (2007). Let's put the person back into entrepreneurship research: A meta-analysi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business owners' personality traits, business creation, and success. *European Journal of work and organizational psychology*, 16(4), 353-385.
- Sarasvathy, S. D.(2009). *Effectuation: Elements of entrepreneurial expertise*. Edward Elgar Publishing.
- Shapero, A., & Sokol, L.(1982). The social dimensions of entrepreneurship. *Encyclopedia of entrepreneurship*, 72-90.
- Sitkin, S. B.(1992). Learning through failure: The strategy of small losses. *Research in organizational behavior*, 14, 231-266.
- Venkatraman, N., & Ramanujam, V.(1986). Measurement of business performance in strategy research: A comparison of approaches.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11(4), 801-814.
- Vesper, K. H.(1990). *New venture strategies*. 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s Academy for entrepreneurial leadership historical research reference in entrepreneurship.